

보건계열 대학생의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성원*, 김신향**, 박시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Soung-Won Byun*, Sin-Hyang Kim**, Si-Hyun Park***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K도 OO대학교 보건계열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활동 중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관련수업을 수강한 경우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냈고,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과 정적상관관계로 밝혀졌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이주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활동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다문화, 교육, 태도, 교류, 다문화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th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could influence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thus, total 407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f OO University in K province were recruited and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for this study. As a result, those who had the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had the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and took the classes related with multi-culturalism showed high multi-cultural awareness. In addition,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multi-cultural awareness. At last,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Health science students could play important role in immigra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are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trongly suggest to provide proper education and various activities of multi-culturalism to those students. It would lead to a high quality of care and firm health care system for the immigrant population residing South Korea.

Key Words : Multi-culturalism, Education, Attitude, Exchange,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Received 28 September 2016, Revised 31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oung-Won Byun(Ansan University)
Email: bswroh9606@ans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74만명으로 전체주민등록인구 비율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등록 인구대비 5%이상 지자체는 총 22개 지역이며 그 중 경기도 안산시가 83,648명으로 전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1]. 특히 원곡동은 안산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정착화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거주로 인한 다양한 문화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2]. 이렇게 우리사회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확대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없이 다문화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3]. 또한 자신들이 속해있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4]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은 언어의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 적응이 어렵고 사회적 편견과 법적, 제도적 차별,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5].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상태를 겪고 있으며, 문화적 응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들은 병원 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절차의 복잡함, 동료 집단의 지지부족, 의료인의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7].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89%가 근무 중에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경험이 있고[8],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66%가 실습기간 중에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의 94%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73%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90%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8,9].

보건의료인이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 돌봄대상자의 건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건의료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수준이 보육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보건계

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학교나 마스크 등을 통해 다문화를 접하여 알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보건의료인은 돌봄 대상자의 간호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상담자와 교육자, 옹호자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들을 돌보게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 수준을 확인하여 간호 현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차별 없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내용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파악한다.
-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 셋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상관 분석한다.
- 넷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OO대학교 대학생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

지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의 크기는 G* power Ver. 3.1.2 analysis ware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최소 표본의 수는 166명으로 산출하였다. 4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2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에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1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407명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접촉경험은 총 7문항으로 성별, 학년, 일상생활 중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과 그 느낌, 학교활동 중 이주민과의 접촉 여부와 그 느낌,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 다문화관련 수업 경험여부, 다문화관련 수업의 필요성 총 7문항으로 구성된다.

2.3.2 문화 태도

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미선[13]이 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은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은 다인종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문화의 인정, 다문화에 대한 신념, 이주민에 대한 친밀감, 소통, 관심, 다문화지식 수용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3.3 문화 교류

문화 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연[1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4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임주용[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69$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최종 407명의 설문지를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 태도와 문화 교류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문화태도, 문화교류, 다문화 인식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값의 유의도는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여자 340명(83.5%) 남자 67명(16.5%)으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218명(53.6%), 2학년이 155명(38.1%), 3학년이 34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 접촉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33.2%(135명), 없다는 66.8%(272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 접촉한 135명의 반응에서 긍정적이었다는 76명(56.3%), 부정적이었다는 9명(6.7%), 그저 그랬다는 50명(37.0%)으로 나타났다. 학교활동 중 이주민과 접촉경험은 ‘있다’ 응답한 경우가 19.2%(78명) ‘없다’는 80.8%(329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수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는 1.7%(7명), ‘심각한 수준이다’는 48.9%(199명), ‘보통이다’는 44.5%(181명), ‘이주민이 오히려 우대받고 있다’는 1.5%(4명)으로 조사 되었다. 다문화 관련된 수업 경험은 ‘있다’는 51.6%(210명), ‘없다’는 48.4%(197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문화 관련 수업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응답한 경우가 75.9%(309명), ‘필요하지 않다’는 24.1%(98명)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67 16.5
	Female	340 83.5
Grade	First year	218 53.6
	Second year	155 38.1
	Third year	34 8.4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Yes	135 33.2
	No	272 66.8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Yes	78 19.2
	No	329 80.8
Perception about racial discrimination existing in South Korea	Very serious	7 1.7
	Somewhat serious	199 48.9
	Not serious	181 44.5
	No discrimination at all	14 3.4
	Multi-cultural families got privilege	6 1.5
Experiences of tak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Yes	210 51.6
	No	197 48.4
Thoughts about hav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Necessary	309 75.9
	Unnecessary	98 24.1

3.2 연구대상자의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 수준

연구대상자의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문화 태도 3.47(±.498), 문화 교류 3.36(±.423), 다문화 인식 3.70(±0.54)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Questions	Mean	SD
Attitudes toward culture	3.47	.498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3.36	.423
Multi-cultural awareness	3.70	.540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에 의한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은 있는 경우가(3.83±0.54) 없는 경우(3.63±0.52)보다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활동 중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 있는 경우가(3.90±0.50) 없는 경우(3.45±0.54) 보다 다문화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3.87±0.48) 없는 경우(3.51±0.53) 보다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by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N	Mean	SD	t/f	p	
Gender	Male	67	3.67	0.66	-0.42	0.675
	Female	340	3.70	0.51		
Grade	First year	218	3.75	0.51	2.286	.103
	Second year	155	3.63	0.58		
	Third year	34	3.67	0.46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Yes	135	3.83	0.54	3.665	0.000**
	No	272	3.63	0.52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Yes	78	3.90	0.50	3.724	0.000**
	No	3	3.45	0.54		
Experiences of tak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Yes	210	3.87	0.48	7.120	0.000**
	No	197	3.51	0.53		
Thoughts about hav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Necessary	309	3.80	0.50	6.997	0.000**
	Unnecessary	98	3.38	0.53		

3.4 문화적 태도,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인식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문화 태도(r=.588), 문화 교류(r=.601)는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이는 문화태도가 좋을수록,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화교류가 문화태도보다 다문화 인식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태도와 문화교류(r=.475) 역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Variables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Multi-cultural awareness	1		
Attitudes toward culture	.588**	1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601**	.475**	1

** p<.001

3.5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문화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그 결과 설명력은 47.9%($R^2=.476$)이고 VIF 값은 1.29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F 값은 185.69,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화교류($B=.527, p=.000$), 문화 태도($B=.421, p=.00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문화 태도가 좋을수록 다문화 인식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The influences of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on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D	Beta		
The attitudes toward culture	.421	.044	.391	9.574	.000
Th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527	.052	.415	10.173	.000
R^2 (adjusted R^2) = .479(.476) F= 185.678 P=0.000					

4. 논의

본 연구는 향후 이주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건계열 학생들의 문화태도 및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살펴보면 다문화 인식 3.70(± 0.54)점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김남희, 임선영[16]이 보고한 3.55(± 0.43)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김경희, 이은경, 김지수[10]가 보고 한 2.80(± 0.43)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임미선, 박정운 [17]의 연구결과 4.01(± 0.59)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나 연수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17]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연계해 볼 수 있다. 즉 연구대상의 51.6%가 다문화 수업 참여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 인식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인식수준이 보육교사 보다 낮은 것은 보육현장에서의 이주민 자녀나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접촉빈도가 높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참여가 관련 요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된다[18]. 즉 다문화 교육이나 연수 참여, 이주민과의 잦은 접촉경험 등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에 의한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권미은 외[19] 연구에서 성별과 학년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김진철과 장석봉[2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문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과 성별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문화 태도, 문화교류, 다문화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과 문화 태도($r=.588$), 문화 교류($r=.601$)는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문화태도와 문화교류 요인들이 다문화 인식을 47.6% 설명하였다. 즉 문화태도가 긍정적이고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0,1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간호사나 간호 대학생 집단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육교사 집단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태도가 긍정적이고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보건 전문가로서 준비[21]되기 위한 다문화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함양을 위한 올바른 문화태도 형성과 긍정적 문화교류 및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 태도, 문화교류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실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총 40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이주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활동중 이주민과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관련수업이 있는 경우가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냈고,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은 47.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대학생의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인식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태도와 문화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in 2015.", 2015.
- [2] J. W. Han, "A The regionalization process of the immigrants in Wongok-dong, Ansan-c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2008.
- [3] O. H. Ahn, S. S. Baek, J. S. Kim, "Cultural Competency by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2, No. 2, pp. 19-26, 2012.
- [4] K. I. Kim, J. Y. Park, "Cultural Difference impact on the ERP System Implementation.", ITEC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2, pp.1-9, 2016.
- [5] M. S. Ju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ealthcare-related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rom nursing's point of view.",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6, No. 1, pp. 1-20, 2009.
- [6] E. J. Goh, "Relevance of stress for cultural adaptation, domestic violenc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ost-traumatic stress to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7] D. H. Lee, "Polymer Society of Korea Home page", <http://www.polymer.or.kr> (July 14, 2003)K. S. Kim, M. Yu,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Cultural Awareness of Immigrants for Marriage, Foreign Workers in Korean Nursing Students.", Koewan J Adult Nurs, Vol. 24, No. 5, pp. 531-539, 2012.
- [8] M. J. Kim, T. I. Kim, Y. J. Kwon,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in Chungcheong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334-1344, 2014.
- [9] J. H. Kim,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7, pp. 303-314, 2014.
- [10] K. H. Kim, E. K. Lee, J. S. Kim, "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6, pp. 3049-3058, 2011.
- [11] J. Y. Seo, G. Choi,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2, No. 1, pp. 25-32, 2012.
- [12] N. Y. Lee, E. N. Lee, E. Y. Park, "The Attitudes of Nurses Toeard Multi-cultural Familie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 19 No. 2, 241-250, 2013.
- [13] M. S. Lim, "A Study on Daycare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y.",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and Housing Environmen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0.
- [14] S. Y.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Helping Profession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5, No. 12. 1. pp. 23-53, 2010.
- [15] J. Y. Lim, " Perception ans Self Efficiency Esteem of the Multi Culture Among the Adolescents.", Department of Home Economic,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9.
- [16] L. H. Kim, S. Y. Lim,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4, pp. 169-184, 2014.

- [17] M. S. Lim, J. Y. Park, “A Study on Daycare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7, No. 7, pp. 25-37, 2011.
- [18] H. R. Han, J. Y. Park, O. J. Chang,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16, No. 4, pp. 169-196, 2010.
- [19] M. E. Kwon, M. J. Kwon, M. A.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Experiences, Perceptions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Vol. 11, No. 3, pp. 5-25, 2012.
- [20] J. C. Kim, B. S. Jang, “A Study o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 and Efficacy”,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2, No. 3, pp. 39-60, 2010.
- [21] E. Y. Lee, K. H. Shon,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job stress in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87-95, 2015.

변 성 원(Byun, Soung Won)



- 2002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다문화간호 · 상담, 영화제작교육

· E-Mail : bswroh9606@ansan.ac.kr

김 신 향(Kim, Sin Hyang)



- 2011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정신보건, 다문화상담
- E-Mail : kkkk210@hanmail.net

박 시 현(Park, Si Hyun)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간호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가족간호, 회복력, 폭력및학대이슈, 질적연구방법론

· E-Mail : spark@inha.ac.kr